

템플스테이, “한국 관광의 기본 코스”



오는 10월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 동안에 사찰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조계사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템플라이프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템플 스테이가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주시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세계무술축

제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 운영키로 했다.

이번 세계무술대회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 이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적지 않은 외국인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주시, 무술축제 참가자 체험형 숙박프로그램 운영 조계사도 3월부터 월 1회 '템플라이프' 정례화

이에 따라 충주시는 외국인도 물론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사찰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축제 관람 및 문화유적 답사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찰생활 체험은 축제 기간 중 1박2일 일정으로 참선과 발우공양 등의 불교문화를 집중적으로 체험토록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말 까지 희망 사찰 및 가능

인원을 조사해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9월 까지 참가 신청접수를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주에는 대원사, 대원암 등 30여 곳의 사찰이 있으며, 현존하는 신라석탑으로는 가장 오래된 중앙탑과 봉황리마애불상군, 중원탑평리7층석탑, 중원미륵사지 등 삼국·고려·조선 시대 불교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조계사는 3월부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템플 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월드컵 이후 조계사를 찾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개별 외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의 참여 요청이 늘어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템플 라이프는 참선과 다도, 발우공양 등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조계사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조계사 스님들이 직접 지도하며, 조계사 외국인인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통역을 맡는다. 국내의 단체에서 참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원하는 날에 참여할 수도 있다.

조계사는 많은 내·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ean@buddhapia.com

용주사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 논란

제2교구차원 환경단체와 연합 저지 "문화재·조수보호구역 훼손 우려"

국보 120호 범종, 천연기념물인 회향 나무가 있는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와 사적 206호인 용·건릉 사이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용주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는 화성시 태안읍 안성리 일대 112만㎡에 오는 2008년까지 15층 아파트 3490가구 등 모두 39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3지구는 전체 개발면적 중 2/3인 84만㎡가 용주사와 용·건릉에서 반경 500m안에 포함된다.

주택공사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내 개발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공사는 2002년 11월 허가를 받은 상태.

용주사측은 택지개발을 위한 6차선 도로가 용주사 일주문에서 100m 거리에 건설되고, 천연기념물 도 문화재 7점, 문화재자료 2점 등 31점의 각종 문화재가 집중돼, 수환경경 침해 및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주사 교무 성무 스님은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능을 화산에 옮기며 다시 일으킨 사찰이며 용릉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건릉은 정조와 그의 비 능이기 때문에 용주사와 용·건릉은 하나의 '문화재 벨트'라며 "2월 19일 열리는 교구총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려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사암련 회장 원행 스님

원주불교사암련연합회는 2월6일 평원동 불교회관에서 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현 연합회장 원행스님(원주 구룡사 주지)을 회장에 재추대했다.

또 총무에는 성운 스님(용화사 주지), 재무에는 혜성 스님(원은사 주지), 감사에는 법선 스님(영기사 주지)과 정선 스님(극락암 주지)을 각각 선임했다.

한명우 기자

강화군, 보존사 있는 교량 건설

우리나라불교의 3대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보존사가 위치한 강화 석모도와 강화읍을 잇는 교량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교량이 건립될 경우 보존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

망이다.

강화군은 "석모개발주식회사와 보성건설이 자본을 들여 석모대교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공사는 2007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화군 외포리 선착장에서 뱃길로 10여분 거리의 석모도에는 월 평균 1만2천~1만6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보문사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전·의경 포교' 주력키로 올해 '경찰 불교회 활성화'

서울지역 경승실장과 경승스님 30여명은 2월 11일 간담회를 갖고 올 해 '경찰불교회 활성화'와 '전·의경 포교'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불교경승단 서울지단장 지홍 스님은 "경찰포교는 경승스님과 경찰불교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찰불교회를 새로 결성하고, 결성된 곳도 활동 강화에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철우 기자

노인들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60세 이상 노인	있다.
60세 이상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건전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4명은 취업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td>'이성 사귀고, 돈 벌고 싶다'</td> <td>지금 성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26.1%가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의 80.8%는 월 1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td>	'이성 사귀고, 돈 벌고 싶다'	지금 성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26.1%가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의 80.8%는 월 1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이 지난해 12월 광진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노인 복지 욕구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취업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1.9%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의사가 반영됐다.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현상도 지적됐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15.5%만이 '돈을 벌고 있다'고 답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1.9%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의사가 반영됐다.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현상도 지적됐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15.5%만이 '돈을 벌고 있다'고 답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것 우리 신도

절일 하면서 '불자 자부심' 느껴

경기도 광주 천룡사 유정근 거사



천룡사앞에 있는 밭에서 얼지말라고 겨우내 덮어 두었던 비닐들을 뜯으며 땅을 고르고 있는 유정근 거사.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도량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동읍 천룡사 유정근 거사(48)의 각오가 이렇게 비장할 정도로 남다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지난 3년동안 도량 불사에 흘린 땀방울의 의미 때문이다. 자기집을 가꾼다해도 아마 이만큼 정열을 쏟지는 못할 것이다.

다. 내 집은 남이 지어 준 것을 돈주 상남에서 천룡사까지 1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지 만 거의 매일 출퇴근(?) 하다시피 했다.

"처음에 직접일로 전기공사를 하러 이곳에 와보고 기가 막혔어요. 덩그러니 다 쓰러져 가는 건물 두 채 이외엔 잡초와 칠포로만 무성한 이곳이 어떻게 도량이 될까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못질에서 삽질까지 하시더군요. 그때 잠시 잊고 살았던 불심이 되살아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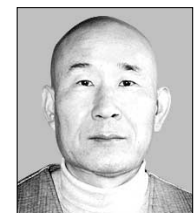
그때부터 유 거사는 주지 스님과 더불어 낮에는 도량불사에,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에 매진했다. 우선 비만으면 잡기는 절 마당에

모래를 까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 대응전에 전기공사를 하고 불상을 모셨다. 또한 대응전 한편에 주방과 주지 스님이 기거할 작은 요사채도 만들었다. 말 그대로 토굴에 불과했지만 맨주먹으로 손수 일구었다는 자부심만은 큰 규모 사찰의 신도 못지 않았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큼니다. 내 집은 남이 지어 준 것을 돈주 상남에서 천룡사까지 1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지 만 거의 매일 출퇴근(?) 하다시피 했다."

유정근 거사는 절 앞에 있는 밭에 자주 나간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고르며 채소 심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사찰 재정이 어려워 나뉠 줄 것이 없어 인근 주민들과 신도들에게 채소 공양으로 새봄을 맞이 위해서다.

경주=김주일기자



주년의 달

벽암스님 천룡사 주지

운수남자처럼 전국

의 선방을 떠돌아 다

니다가 수행 생활의

회향을 도량 불사에

결심하고 우연히 인연

이 된 이곳 천룡사에

결망을 풀었습니다. 내

가 봐도 처음에는 허름한

농가인 이곳을 어떻게

도량으로 여법하게 바

꿔 놓을까 걱정

여여하게 본분 다하는 불자

했는데 바로 유정근 거사가 나타나 큰 힘이 돼 주었습니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가끔마다 사찰에 와서 기도하기도 힘든 것이 요즘 속세인들의 삶인데 어려운 형편에 발품을 팔아가며 손수 자신의 집을 짓듯이 절 불사에 헌신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2004년 3월 11일 개강

제7기 기초반 제5기 경전반

● 기초반: 매주 화·목 오후 2시~4시 ● 경전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주요 특강교수진

지관 큰스님 - 前 해인사 주지, 동국대 총장

現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세민스님 - 해인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법산스님 - 동국대 정각원장

현각스님 - 동국대 선학과 교수

태원스님 - 중앙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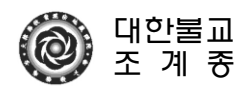
권기종교수 - 동국대 前사회교육원장

김용표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현호스님 - 안양불교학장, 지장선원 주지

최영준거사 - 불교방송 진행자, 개그맨, 가수

행자 모집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안양불교대학

031)444-5935~6 홈페이지 - http://지장선원.kr

카카오페이 - http://cafe.daum.net/ijiangzencenter



정토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85-16호 / 전화 02)587-8994 팩스 02)587-8998

http://www.jungto.org young@jungto.org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

법륜스님의 금강경대강좌

2004년 봄, 절대적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위해 이 땅에 나무셨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금강경대강좌'가 전국 정토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법회는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 개원 기념 법회로 진행되고 기타 지역법당에서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 전국 11개 정토법당 지역별 일정표

법 당	요 일	일 정	수 계 식	연 락 처
서울법당	매주 수 / 목	3. 3 ~ 6.10	5 / 19(수)	02)587-8993
부산법당	매주 화 / 목	2.24 ~ 5.27	5 / 27(목)	051)747-9997
대구법당	매주 월 / 목	3. 1 ~ 6. 7	5 / 10(월)	053)744-3025
대전법당	매주 목 / 금	3. 4 ~ 6.10	5 / 21(금)	042)253-8990
청주법당	매주 화 / 수	3. 2 ~ 6. 8	5 / 14(금)	043)284-5951
미산법당	매주 화 / 수	3. 2 ~ 6. 9	5 / 12(수)	055)247-8991
울산법당	매주 화 / 금	3. 2 ~ 6. 8	5 / 7(금)	052)245-8995
광주법당	매주 월 / 금	3. 1 ~ 6. 7	5 / 17(월)	062)511-8990
제천법회	매주 화 / 수	3. 9 ~ 6.15	청주에서	043)648-0083
정읍법회	매주 수 / 금	3.10 ~ 6.16	광주에서	019-308-2731
제주법회	매주 화 / 목	3. 9 ~ 6.15	부산에서	064)724-7885